

학생처장의 빛과 그늘

朴 煥 植

(延世大 教授)

학생처장이란 자리가 대학의 직제에 언제부터 속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학이 학문을 가르치고 학생의 생활지도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는 한, 학생처장의 자리는 대학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학생처장의 직능을 넓게 말해 학생의 생활지도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라 그 특색을 달리해 왔음을 알고 있다. 그 역사를 오래 소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대학에 다니던 50년대의 학생처장은 주로 교복을 입도록 하고 벡타이를 단속하고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 등의 일에 신경을 썼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던 것이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그 직능이 변질되어 어느덧 학생처장이 마치 데모 막는 자리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학생처장의 자리가 이렇게 인식되면서부터 학생처장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자리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교수들은 가능하면 이 자리를 피하려 하고, 부득이 맡게 되더라도 오래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 같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현재의 나를 설명하기 위해, "살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어찌다 학생처장직을 맡게 되었느냐는 물음을 당할 때마다 위의 말보다 더 적절한 답변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교수직에 뜻을 둔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학자로 대성하기를 염원한다.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강의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 누구도 학교행정에 발을 들여 학문적으로 상처를 입고, 강의가 위축되고 동료교수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끼면서 학자도 행정가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서성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물론 그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생김새도 장대하게 생기지 못했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어서 내가 학생처장의 직책을 감당하리라고는 나를 포함해서 주변의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간혹 찾아오는 졸업생들도 하나같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위의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행정에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5년을 넘기고 있다. 전 반 2년여는 교무처에서 일했고 지금은 학생처에서 일하고 있다. 어떤 이는 나에게 말하기를 "학생처장을 하다가 교무처장으로 옮겨왔는 것이 順理인데 그 逆으로 되었으니 강등된 것이 아니냐"고. 나도 이에 동감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직책들도 각각 그 나름대로의 업무와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대학에서는

누가 뭐래도 교무처가 가장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교무처의 일과 학생처의 일을 서로 비교하기란 힘든 일이지만, 대체로 교무처의 일이 비교적 사무적이고 시간을 두고 연구할 수 있는 정적인 성질의 업무라면 학생처의 일은 학생들과 부딪치면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 동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글의 제목을 학생처장의 빛과 그늘이라고 했다. 남들은 학생처장 자리는 그늘이지만 하고 힘들고 피로운 자리로만 알고 있는데 그 학생처장의 자리에도 빛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말인가? 학생처에서는 이름 그대로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호국단 간부들과는 수시로 만나게 되고, 서클대표들과 만나 토론회하는 일도 자주 있다. 장학금을 위해 오는 학생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는 학생들도 있으며 행사비 보조를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다. 나는 이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며 여건을 남돋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도 이해하고 친숙해지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각종 행사 때는 테이블을 끄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행사팜프렛에 축사를 써주기도 하며 행사에 나가 인사말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기말에 학생간부들과 마주 앉아서 학기를 회고하면서 전배를 들 때면 그동안에 쌓인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 듯하다.

더구나 학생처장은 정초가 되면 세배받기에 바쁘다. 호국단 간부와 서클대표들, 연세춘추와 방송국 기자들 그리고 응원단 학생들로 줄을 잇는다. 물론 세배객 중에는 졸업한 학생간부들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사귀 학생들의 결혼주례를 맡게도 된다. 이러한 일들은 학생처장만이 누리는 기쁨이요 학생처장의 빛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학생처장에게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늘도 있다. 그 그늘의 어려움이 빛을 흐리게 하고도 남을 만큼 길기 때문에 학생처장 자리를 어려운 자리라고 한다. 나에게서는 그 그늘을 농도있게 묘사할 능력이 없다. 다짐을 받고 허가해 준 행사가 중도에서 사태로 변질될 때 나는

당황하게 된다. 창문을 깨고 유인물을 뿌리면서 사태를 주도하는 학생 중에 어제까지 나와 마주 앉아 대화하던 학생이 있을 때 나는 허탈해진다. 그러나 나는 이 학생들을 미워하거나 야속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그 의식의 벽을 낮추기에는 시간이 좀더 흘러야겠다고 생각할 뿐이다. 더구나 학교를 떠난 학생들의 그 뒤가 한참 후에 신문에 보도될 때는 가슴아프다.

나는 지난 2년여 동안 학생처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어 왔다.

첫째로는 교수와 학생을 대립관계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이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학생지도는 궁극적으로는 교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교수가 강의와 대화를 통해서 하는 말들이 서서히 학생들의 의식에 침투하여 지도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와 학생이 서로 대립하게 되면 교육이 끝나게 되며 교육이 끝나면 지도도 함께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2년동안 대학의 상황이 그렇게 급하고 어려웠어도, 결코 성급하게 굴지 않았으며 학생이 교수를 불신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둘째로 나는 대화를 학생지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나는 학생처장의 권위로 학생의 요구를 누른 일도 없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일도 없다. 대화는 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인임을 자처하는 대학생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장기적으로 보아 대화가 학생지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대화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대화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화는 서로를 이해시키고 서로를 친숙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대화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하여 나쁜점은 내버리고 좋은 점만 골라 보다 나은 생각을 갖자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는 사람의 생각을 수정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대화는 생각의 모를 깎기도 하고 자

기 생각만이 옳다는 독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때때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생각의 강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학장들의 생각과 학과장들의 생각 사이에 거리가 있고, 학과장들과 일반 교수들의 의식 사이에서도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주로 言語의 소통이 부진한데 연유하는 것이다. 이 언로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면 학교가 뭘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교수와 학생들이 잘 모르게 되며, 여기에서 오해도 발생하고 소외감도 생기게 되며 일체감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 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불때 대화는 학생지도에서 뿐 아니고, 한 집단을 원활히 끌고 나가는데도 매우 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대화라는 무기를 들고 학생지도에 임하였다. 시간이 나는대로 호국단실에 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라야 반드시 거창한 주제를 내걸고 감론을박하는 것만이 아니다. 서로의 신변잡담에서 시작하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이나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로 화제가 옮겨가게 된다. 서클룸 순방지도도 열심히 하였다. 서클룸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으나 순방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그러는 사이에 왜 좀더 자주 오시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게 된다. 서클 대표자들과는 한 학기에 수차례 걸쳐 공식 회합을 갖기도 하고 수련회에 따라가서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거나 생각의 모가 짝이게 되면 이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나는 서클지도 교수님들에게도 서클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클룸에 자주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 인간적으로 친숙해 달라고 되풀이 당부하곤 한다. 나는 대화가 학생지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나는 학생지도를 교육적 시각에서 다루어 왔다. 대학은 교육기관이요 교수는 교육자라는 생각을 기초로 하여 학생지도에 임하였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생각이 미숙한 학생을 받아들여 그 생각을 성숙시켜 사회로 내보내는 곳이다. 대학생은 언제나 젊고 열기 왕성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성숙하지 못하다. 생각과 행동이 성숙해질만 하면 졸업하게 되고, 다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언제나 이상적인 눈과 충동적인 행동과 젊음의 열기가 넘칠듯이 넘실거리는 곳이다.

대학의 교육기능은 어린애를 키우는 것에 비유될 수도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하기 마련이다. 불장난도 하고 물가에 나가 놀기도 한다. 위험한 장난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면서 자라나게 된다. 아이들에게 불장난도 물가에 나가는 일도 모두 지내고 보면 쓸데없는 일이니 그런 것은 하지 말라면서 막아버리면 그 아이는 창의력도 모험심도 위기를 극복하는 인내심도 없는 아이어른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학생들도 성장과정에 있고 교육과정에 있다. 그들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행동도 해보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성숙해 가는 것이다. 시행착오는 창의성의 표현이요 발전의 징표이다. 물론 학생들의 행동 중에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대학은 그들까지도 시간을 두고 끈기있게 교화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대학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교육적 아량과 교육적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그것을 저버릴 때 대학은 그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육적 실득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자행하고, 사회가 대학의 교육적 시각을 포용하지 못할 때, 학생처장은 그 빛보다 그늘에 가리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교육적 차원에서 대화라는 합리적 수단을 통한 지도방침을 묵묵히 견지해 나갈 것이다. *